

AUTHOR 주재용

TITLE 개혁교회신앙과 한국교회

IN 신학연구

vol.34 (1993) : 5-24

개혁교회신앙과 한국교회*

주 재 용**

<차 례>

- | | |
|-------------------------------------|---------------------------|
| I. 서 론 | 무엇이 문제인가? |
| II. 개혁교회신앙의 신학적 근거 | IV. 한국장로교회에서의 개혁신학 운동 |
| 1. '하나님께만 영광'(Deo soli gloriai)의 신학 | V. 맺는말: '신학은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
| 2.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 | |
| III. 한국 개혁교회의 신학과 신앙: | |

I. 서 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개혁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개신교의 한 교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회”로 통칭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Reformed Churches)와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es)는 같은 교회이다. 특징은 Presbyterian Government System, 즉 장로정치를 하는 교회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미와 그 선교지역에서는 “장로교회”, 그리고 구라파 지역에서는 “개혁교

*이 논문은 1991년 제3회 장공기념신학강연을 정리한 것임.

**한신대학교 총장/교회사학

회"라 하고 있다. 1875년에 조직된 세계개혁교회연맹(WARC: The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은 장로교정치제도를 가진 개혁교회 연맹이다.

개혁교회가 16세기 종교개혁운동의 산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해서 개혁교회의 입장은 반(反)중세 로마 카톨릭적이며, 프로테스탄티즘적인 신앙 입장이라 할 수가 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가능케한 요인들이 많이 있겠으나, 그 중에 분명한 것 하나가 르네상스 운동이었다. 르네상스운동, 특히 알프스산 북부의 르네상스 운동은 고전연구와 교회제도에 얽매인 인간해방이라는 차원에서 휴머니즘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16세기 종교개혁운동의 가장 중요한 두개의 원리가 있는데, (1)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semper reformanda) (2)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근거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들은 개혁교회에 지금도 적용되어야 할 것들이다.

이 강연의 순서는 (1) 개혁교회신앙을 설명하고 (2) 그와같은 개혁교회 신학이 한국장로교역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분석비판하고 (3) 한국장로교 역사에서 장공 김재준의 신학활동과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밝힌 다음에 (4) 개혁파의 전통(reformed tradition)에서 있는 한국장로교회의 과제를 신앙양심의 자유와 복음의 자유의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한다.

II. 개혁교회신앙의 신학적 근거

개혁교회의 초석자 세 사람의 이름을 든다면 스위스를 중심으로 개혁운동을 전개했던 쾰링거(Zwingli, 1484-1531), 불란서와 제네바를 중심으로 개혁운동을 했던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한 존 녹스(John Knox, 1514-1572) 등이

라 할 것이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의 핵심을 세가지 '만'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믿음만'(sola fide), '은총만'(sola gratia), 그리고 '성서만'(sola scriptura)으로 집약한다. 이 세가지 '만'에 집약된 신학은 곧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신학이며, 이것은 중세 로마카톨릭교회의 신학을 비판하고 극복하기 위한 신학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언급하고 가야 할 것은 중세 로마카톨릭의 신학은 '스콜라신학'(Scholasticism)이었다는 것이다. 이 신학은 초대교에서 형성된 '교의'(dogma)를 계승하여, 이것을 분석, 설명하고 체계화를 도모한 신학이다. 특히 신앙과 이성, 신학과 철학의 조화에 주력했다. 따라서 중세 스콜라신학의 대표자들은 주지주의적(主知主義的) 사상가들이 대부분이었다. 우리가 신앙의 내용과 삶을 주지주의적으로 설명하는데 치중하게 되면, 그 신앙이 역동성을 잃게 되고 따라서 굳어진 도그마가 되어 '생명있는 신앙'(living faith)이 형식논리에 얽매이게 된다. 16기 종교개혁 운동은 바로 이 생명력을 잃은 신앙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장로교 역사에서 다시 상기하게 될 것이다.

개혁교회의 세 사람의 초석자들, 즉 쾰링거, 칼빈, 녹스 모두가 16세기 종교개혁의 신학을 집약시킨 세가지 '만'의 신학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세 사람에게 있어서 강조점과 이해와 설명은 약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 중에서, 개혁교회, 특히 한국장로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칼빈의 신학을 중심으로 개혁교회 신앙의 신학적 근거를 고찰하려고 한다. 칼빈의 신학도 전부를 다 고찰할 수가 없으므로 그의 신학의 기초가 되는 사상, 그리고 한국장로교회에 가장 관계가 깊은 신학만을 살펴 보려고 한다. 칼빈의 신학중에서 가장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과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으로 집약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1. '하나님께만 영광'(Deo soli gloriai)의 신학

칼빈의 신앙생활의 제1신조는 “하나님께만 영광”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특징이 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인간의 부정, 엄격한 개인적, 사회적 정신의 삶, 복종의 강조, 피조된 것의 신격화에 대한 부정 등은 모두 “하나님께만 영광”에서 유래하고 거기에 근거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신학의 주격은 하나님 자신이다. 칼빈의 개혁운동의 동기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인간의 역사, 인간의 전통, 인간의 지성, 인간의 가능성, 공적, 인간의 권위 등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것에 대한 반대이었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도 구원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인 것이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원리(analogia fidei)인데, 이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이 선물에 대한 찬미와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신앙이 ‘회개’보다 앞서 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확신할 때 회개는 가능하다. 이것이 은혜(gratia)라는 것이다. 신앙이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생하는 것’이라 보았다. (faith is born: it is not made). 물론 칼빈이 신앙을 하나님의 ‘선물(성령의 선물)’이라 했다고 해서 인간의 결단을 전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다. 믿음은 ‘은사’임과 동시에 ‘결단’이다. 은사없는 결단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경험과 관계가 없는 것이 되며, 이때 결단은 ‘공적’이 되고, 반면에 결단 없는 은사는 인간을 ‘자동인형’(automation)이 되게 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말하는 점에 있어서 비논리적 대담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칼빈의 개혁정신의 지력이었다.

〈신 지 식〉

칼빈은 ‘인간의 삶의 주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그

것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의 제네바 교회의 카테키즘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이 개혁교회 신앙 문답의 전통이 되었고, 이에 의하면 결국 신인식이 인간 삶의 궁극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칼빈신학의 출발점은 신인식(knowledge of God)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신인식에는 세 가지 기본원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

(1) 피조물이며 죄인으로서의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능력에 적합한 방도로 당신을 적응시켜 계시한다.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통하여,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신다.

(2) 칼빈에게 있어서 신인식과 인간인식은 매우 긴밀하게 상관되어 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우리 자신들을 아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참된 인간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다.

(3) 그의 신지식은 실존적 신인식이다. 그는 중세 스콜라 신학이 관심 가졌던 존재론적, 우주론적, 목적론적 실존재 증명 등에는 흥미가 없었다. 그런 것은 모두 사변적 유희같은 것이었다. 신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의 영광도 알고, 그에게 경외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면 인간은 예배와 복종으로 응답해야 한다. 칼빈은 “신인식이란 복종과 예배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할 것을 행하는 것이다.” 또 “종교와 경건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숨어계신 하나님”(Deus absconditus)에서 ‘계시된 하나님’(Deus revelatus)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자유행위이므로 우리에게 ‘은총’인 것이며, 따라서 신인식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이다.

〈예 정 론〉

‘하나님께만 영광’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즉 하나님의 결정에 대

해서 인간의 이의신청의 절대적 불가에서 오는 것이므로 결국 그것은 예정론에 연결된다. 그러나 기독교 예정론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신앙고백에서 이해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신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고, 따라서 예정론은 신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떤 일반론적 사색을 위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알아야 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론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현, 즉 '은총만'(sola gratia)의 종합적 표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에 의한 행동(결정)은 그의 은총의 자유로운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의 예정론은 역사철학이나, 심리적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유한 사랑의 샘에서 나온다"는 것, 따라서 우리의 공로는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배제했을 때, 칼빈의 예정론은 결정론이 되고 숙명론이 되고 만다. 그의 예정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사변의 유희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우리의 예정의 최대목적은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루터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지적하고 갈 것은 칼빈은 결코 사변적 사상가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2.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

16세기 종교개혁은 '성서의 재발견',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게 하였다. 그것은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하는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 기독교는 '권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로마카톨릭의 교황과 교회전통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대치시켰다. 칼빈은 두말할 나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자였다. 칼빈이 일찍이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여 조직신학자

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으나 그는 「기독교 강요」 제2편(1539) 서문과 불어판 서문에서 「기독교 강요」의 우선적 목적은 어떤 신학체계를 세우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사람들이 바르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성서에 대한 칼빈의 표현은 역설적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즉 성서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신탁'(the oracles of God) 등 '하나님으로부터'(from God), '하늘로부터'(from heaven)의 표현을 사용함과 동시에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모세의 입을 통하여'라는 표현도 쓰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인간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성서는 :

(1) 하나님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를 떠나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물론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연계시), 그 세계를 통해서도 더 이상 밝힐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성서만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이다. 성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더 확실하고 더 직접적인 것"이다. 칼빈은 "주의 말씀은 무릇 주에 관하여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규명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유일한 길이며, 그에 관하여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도록 조명해 주는 유일한 빛이다."라고 말한다. 성서를 떠나면 우리는 우리의 허망한 상상에 빠진다는 것이다. 성서는 시력이 약한 사람에게 "안경의 도움"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데 "안경"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의 도움없이 하나님에게로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2) 우리 삶의 유일한 규범이요 텍스트로서의 성서

우리는 위에서 칼빈의 신지식은 곧 인간지식과 연결된다고 하였다. 그런 점에서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 지식의 유일한 소스(source)라면 그 성서는 동시에 인간지식의 원천이기도 하다. 성서의

인간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다. 인간은 우둔하고 오류를 범하며 연약하기 때문에 이 길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즉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칼빈은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스스로 미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도 ‘말씀의 안내’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다. 율법·예언·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거룩한 삶의 길”(as way of a right and holy life)로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말씀’ 곧 ‘성서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이 복종은 절대적인 것이다. 거기에는 조건이 없다.

<권 위>

그러면 이렇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성서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문제가 이른바 칼빈에게 있어서 ‘성서의 권위’ 문제이다. 성서의 권위 문제는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권위의 소재’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권위의 증거’이다.

성서권위의 소재는 성서의 저자가 ‘하나님의 자신’이라는데 있다. 성서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 하나님 자신이 성서에서 말씀하신다. 성서의 권위가 교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의 권위도 성서의 권위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다. 성서의 권위는 성서의 저자인 하나님 자신의 권위에 근거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딤후 3:16) 이라는 성서의 주장도 성서의 참 저자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 그러므로 예언자, 복음서 기자 등 성서의 기자들은 모두 “성령의 도구”(as instrument of the Spirit)로서 말한 것 뿐이다. 성서의 내용은 성령에 의하여 인간들이 “받아 쓴”(dictated) 것이다. 성서는 그런점에서 신탁(oracle)이다. 성서기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변자”(mouthpieces of God)들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칼빈의 주장이 축자 영감설의 근거가 되는가? 칼빈의 성서의 권위의 근거가 문자무오에 있었는가? 칼빈의 성서의

권위의 근거는 문자무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서의 참 저자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에 있었다.

그러면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성서에 권위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이 칼빈의 유명한 ‘성령의 내적증거’(the inward testimony of the Spirit. = 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사상이다. 칼빈은 성서의 권위가 교회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로마카톨릭의 입장도 반대했고, 성령을 방자하여 일시적 감명으로 진리를 판단하는 열광적 영감주의자들의 입장도 반대했으며, 인간의 이성적 증명에 맡기는 인본주의자들의 입장도 반대하면서, 성령이 곧 성서의 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언자는 하나님 자신이듯이, 성서의 권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언자는 성령 자신 이라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할 수가 있으며, 우리의 ‘칭의’(justification)와 ‘성화’(sanctification)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은사이다. 우리가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성령의 내증’의 원리가 주관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으나, 칼빈에게 있어서 ‘성령의 내증’은 성서 본문의 ‘자증력’(自證力; scripture bears its own authentication)과 그 ‘명료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성서기자에게 임하신 그 같은 성령이 문자에 기계적으로 구속 받지 않고 현재의 독자에게 인격적으로 다시 임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여기 축자영감설의 여지가 없음이 분명하다.

III. 한국 개혁신학의 신학과 신앙 :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위에서 살펴 본 칼빈의 신학, 즉 개혁신학의 신학이 한국 개혁신학에 바르게 전승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개혁신학들은 모두 칼빈의 후예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칼빈의 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늘에 적용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박형룡박사는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이라는 글(1976)에서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을 “청교도적 개혁신학의 신학”이라고 하고 있다. 총신대의 신복윤교수도 “박형룡신학의 한국보수신학사적의의”에서 박형룡의 신학의 의의를 그가 청교도적 개혁신학의 신학을 충실히 전달해 주었다는 데서 찾는다고 하고 있다. 청교도적 개혁신학의 신학이란 박형룡에 의하면 “구주대륙의 칼빈 개혁신학에 영미의 청교도 사상을 가미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에 구현된 신학”이다. 그런데 “구주대륙의 칼빈 개혁신학의 신학”의 내용은 무엇이며, 웨스트민스터 표준에 나타난 신학은 어떤 것이냐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학이 어떻게 한국개혁신학인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이 되었느냐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구주대륙의 칼빈 개혁신학의 신학”은 칼빈주의적 정통주의 신학인데, 이것은 17세기 화란의 보수와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신학이다. 1618년에 도르트에서 화란의 칼빈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다섯 항목으로 발표했는데, 이것이 후에 소위 “칼빈주의 5개 강령”(The Five Points)이 되었다. 그것은 (1) 무조건적 예정, (2) 한정된 구원, (3) 인간의 전적타락, (4) 은총의 불가항력성, 그리고 선택된 자의 영구 보존 등이다.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17세기 칼빈주의 정통주의의 영향을 받아 영국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 5대

강령이나 신앙고백 등은 칼빈 자신이 제네바에서 작성한 신앙고백이나 녹스(John Knox)에 의해서 작성된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앙고백(1560) 등과 비교해서 내용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종성교수는 17세기 이후에 발전된 칼빈주의적 정통주의 신학사상과 칼빈 자신의 신학사상을 다음과 같이 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1) 칼빈은 예정론을 은총론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반하여, 칼빈주의자들은, 각 항목 서두에서 취급하므로 운명론 또는 결정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2) 칼빈은 ‘성령의 내증’에서 문자주의를 의미하고 있지 않으나, 칼빈주의자들은 쓰여진 책 자체가 신언성(神言性)을 증거한다고 한다. (3) 칼빈은 교회 교리는 성서의 빛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칼빈주의자들은 도그마(dogma)에 의해서 성서해석을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4) 칼빈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데 반하여, 칼빈주의자들은 성령을 강조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 성령의 역사를 교리주의적으로 이해하므로 주지주의에 빠지고 있다. (5) 칼빈은 생동적 신학(living theology)을 전개시켰으나, 칼빈주의자들은 사변적 신학을 전개시켰다. (6) 칼빈은 개방적이고 미완성된 신학체계에 만족했으나, 칼빈주의자들은 완결된 신학체계를 강조한다. (7) 칼빈은 주석신학을 강조했으나, 칼빈주의자들은 변증신학을 강조한다.

이 비교에서 17세기 칼빈주의 정통주의자들은 예정론을 숙명론으로, 성서영감설을 문자영감설로 바꾸었으며, 그들에 의하면 성서의 권위가 사실은 교리의 권위로 대치되었고 그들은 주지주의적 입장, 사변적신학, 신학체계 절대주의를 보이면서 신학 바리새주의, 율법주의의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그 때문에 17세기 이후에 발전된 칼빈주의적 정통주의 신학을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신학’(protestant scholasticism)이라고 한다. 17세기 이후 유럽의 칼빈주의 정통주의신학사상

이 미국으로 건너와 미북 장로교회의 신학논쟁을 불러 일으키면서 교회분열을 가져 왔는데, 이때 미국에서 형성된 신학이 '근본주의 신학'(fundamentalism)이다. 근본주의자들은 1895년에 '5개신조'(Five Fundamentals)를 만들었다. 그것은 (1) 그리스도의 처녀탄생 (2) 그리스도의 육체부활 (3) 성서 절대무오 (4)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리고 (5) 그리스도의 임박한 육체적 부활 등이다. 이 신학의 챔피언이 G. 메첸(Machen)이요 이들이 만든 교파가 정통장로교(Orthodox Presbyterian Church)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장로교 선교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미국선교사들은 칼빈 자신의 신학이 아니라 17세기 이후의 칼빈주의적 정통주의 신학, 이른바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신학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율법주의적 청교도주의자들이었고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었다. 이 신학사상의 한국인 챔피언이 박형룡박사인데, 그는 한국의 메첸으로 자처했다. 박형룡교수를 조직신학자들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 엄격히 말해서 그는 변증신학자였다. 그의 신학은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자들, 즉 알렉산더(A. Alexander), 핫지(C. Hodge), 워필드(B. Warfield), 메첸(G. Machen)으로 이어지는 신학이며, 그의 조직신학은 칼빈주의 정통주의자인 벨코프(L. Berkhof)의 「조직신학」에 의존하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박형룡박사 자신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필자의 본의는 칼빈주의 개혁과 정통신학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데 있고 감히 무엇을 창작하려는 것이 아니다.” 박형룡박사가 근본주의 신학자인 것은 그의 말에서도 분명하다. “근본주의는 별다른 것이 아니라 정통주의요 정통파 기독교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적, 정통적 신앙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것, 즉 정통신앙과 동일한 것이니 마치 이것은 곧 기독교 자체라고 단언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정의일 것이다. 근본주의는 기독교 자체이다.” 그의 신학은 이미 완결된 신학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무

오사상에 입각하는 비타협적 보수주의 신학”의 주인공이었다.

이 점에서 그는 어떠한 다른 신학 이론이나 체계도 용납할 수가 없었다. 성서 해석에 있어서도 확일적이고 도그마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성서는 살아계신 성령의 내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그마적 신학이론에 의해서 신언으로 입증되어야 하게 되었다. 여기서 한국장로교, 즉 개혁교회의 신학과 신앙에 문제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IV. 한국장로교회에서의 개혁신학운동

1934년 한국장로교회 첫 회년예배에서 마포삼열(S. A. Moffet) 목사는 말하기를 “근년에 신신학이니 신복음이니 하는 말을 하며 다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그러한 인물을 삼가야 한다. 조선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죽는다는지, 혹은 귀국한다는지, 혹은 선교사업을 최소한도로 축소한다는지 할지라도 조선교회 형제여! 40년전에 전파한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자. 나와 한적진목사가 13도에 두루 다니면서 전파한... <그 복음을> 조금도 변경치 말고 받은 그대로 전하라” 하였다. 1953년 박형룡박사는 장로회신학교 교장 취임사에서 “우리 교회가 70년전 창립되던 당시에 받은 그 신학을 우리 교회의 영구한 소유로 확보하는 것”이 한국교회신학의 수립이라고 하였으며, 그는 1964년 그의 「교의신학」 제1권 서론에서 “...80년전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전하여 준 그대로의 ‘바른 신학’을 새 시대에 전달하는 것이 필자의 염원”이라고 하였다. 여기 ‘바른신학’은 정신학(正神學), 곧 정통주의 신학을 의미한다. 즉 우리에게 전해진 선교사들의 신학을 일점일획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이 제국주의적 식민지주의 신학이고 얼마나 독단적 폐쇄주의적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리하여 살아계신 하

나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 은혜, 구원 모두가 굳어 버린 사변적 신학체계에 윤패되고 말았다. 이런 신학의 입장을 우리는 신학교조주의적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아니오”를 말하면서, 중세 로마카톨릭교회에 저항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여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한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한국장로교회에서 개혁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 이들이 바로 조선신학교를 중심하고 모인 신학자들이며 이들의 지도자요 이 운동의 파이오이어가 장공 김재준 박사이다.

우리가 장공선생님의 신학사상을 여러 차원에서 고찰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그의 신학 중 가장 한국장로교회의 신학논쟁에서 핵심이 되었던 성서관에 국한하기로 한다. 그의 정치신학적 입장은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의 신학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그의 삶이 매우 ‘자연인적’ 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자연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에 입교하기 전에 유학의 영향아래 있었다. 그는 진리를 향해 항상 걸어나는 나그네요 순례자였기에 그의 신학은 ‘순례자의 신학’이어서 그는 어느 한가지 신학체계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좁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자기 안정 속에서 생각을 굳히고 절대화하는 도그마적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유교의 전통에서 기독교로, 자유주의신학 풍토에서 탈자유주의신학을, 보수정통주의신학 풍토에서 탈보수정통주의신학을, 신학을 말하면서도 탈신학화를, 교회를 말하면서도 탈교회화를 주장한 자유의 사람이었다.

그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었다. 김양신목사는 “김재준교수가 자유주의 신학의 대변자인 것은 세인이 주지하는 바이다.” 또 “한인 신학자 김재준교수에 의해서 자유주의 신학사상이 움트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으나 김재준목사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다. 그는 오히려

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하에 있었던 일본 청산학원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막다른데” 이른 것을 느끼고 바르트(K. Barth)의 “초월론”에 대한 논문으로 자유주의 신학에 도전하였다. 바르트의 신학을 우리는 ‘말씀의 신학’ ‘계시의 신학’ ‘신전통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며, 이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부정과 극복에서 창출된 것이다. 이 신학은 칼빈의 개혁교회 신학에 대한 재해석에서 움터 나온 것이다. 바르트의 신학은 칼빈의 신학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공선생은 한국장로교회의 신학논쟁이 정통주의 대 자유주의가 아니라 정통주의 대 신전통주의라고 말한다. 그는 말하기를 “사실 그 상대가 자유주의 신학이었다면, 멋진 승산도 가히 기약할 수 있었을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상대가 이미 정통주의와 자유주의를 함께 이기고 올라선 ‘신전통주의신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적 패배는 단지 일 내에 결정되고 만 것이었다.”라고 한다. 즉 박형룡의 신학과 김재준의 신학과의 논쟁은 정통주의 대 자유주의가 아니라 정통주의 대 신전통주의라는 것이다.

장공 김재준목사는 ‘말씀의 신학자’였다. 김재준목사를 조직신학자, 또는 기독교 윤리학자로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는 성서신학자로 출발하였다. 그의 사회참여적 정치신학적 주장도 성서의 말씀의 빛에서 한 것이었다. 그의 학위논문들은 “출애굽 연대에 대한 고찰” “펜타텍 비판과 주전 8세기 예언운동” 등이었으며, 귀국후 그는 구약 예언자들에 대한 연구논문들을 주로 발표하였다.

성서에 대한 그의 입장은 분명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의 권위’를 어디에서도 부정할 바가 없으며, 성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그 문자적 차원이며, 또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보면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성서가 자연과학의 텍스트가 아님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오류가 성서의 ‘신언성’(神言性)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서연구는 과학적

역사적 탐구와 고증 등 비판적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것은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성서의 저자가 하나님 자신인데, 그 성서가 인간의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그 권위가 없어진다면, 성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성서비판은 “계시의 사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양식”(form)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게 한다는 것이다. 성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해석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성서이해에 있어서 ‘성령의 내증’이라는 칼빈의 입장에서 성서의 교리적 해석을 반대하였다. 성서비판은 사람들이 “추상해 낸 교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성경을 왜곡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칼빈의 ‘성령의 내증’이 주관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장공선생에 의하면 오히려 성서를 자기 편리한 대로 사용하는 교리적 성서해석이 주관주의적 해석이요 합리주의주의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장공선생이 근본주의자들을 가르켜 교묘하게 위장한 인본주의자들이요 정통적 이단자들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것과 연관이 된다.

김재준의 성서에 대한 입장은 다음 다섯 항목에서 요약되고 있다.

(1)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기계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2) 성서기자는 성서를 기록 할 때 전해지고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그것을 비판, 정리, 취사 선택하는 저술의 정칙(正則)을 따랐다. (3)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때 기성품처럼 주신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축음기판이 되게 하지 않았다. (4) 영감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중요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사람에 대한 그의 활동이다. (5) 하나님의 관심은 지적 호기심의 만족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서에는 역사나 과학이나 연대표 등에 절대무오를 기하지 않았다. 김재준목사는 성서가 인간에 의해서 쓰여졌으나, 역사현장에 살고 있는 인간의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성서 자신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점(칼빈의 ‘성령의 내증’ 또는 성서의

‘자증력’)에서 성서가 무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성서 절대 무오설’ 즉 축자영감설은 성서를 비성서화 한다는 입장에서 반대한다. 박형통박사의 입장은 ‘완전 축자 영감설’이다. 이 학설은 17세기 칼빈주의적 정통주의 신학과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김재준의 신학 활동은 17세기 칼빈주의적 정통주의 신학을 거부하고 칼빈신학으로 돌아가는 개혁교회의 신학, 신앙운동이었다. 그는 한국에서 칼빈의 개혁교회 신학과 신앙을 재해석하여 그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였다.

V. 맺는말 : ‘신학은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16세기 종교개혁의 기본원리의 하나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회가 ‘생명있는 교회’(living church)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개혁의 과정에 있어야 하듯이, 신학이 살아 있는 ‘삶의 신학’(living theology)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은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Theologia semper reformanda). 교회가 개혁되고 신학이 개혁될 때 신앙의 갱신이 가능하며, 반대로 신앙의 갱신은 교회와 신학의 개혁을 가능케 한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기본입장인 것이다.

칼빈은 교리주의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교리적 권위가 없다. 그에게는 교권주의적 도그마가 없었다. 오직 그는 열린 성서와 성령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따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사변적, 주지주의적 신학자가 아니었다. 파커(T. H. L. Parker)는 <칼빈의 모습>에서 “칼빈에게 있어서 ‘사변’이라는 것처럼 삶은 없었다. 사색이라는 것은 인간이 성경 옆을 슬쩍 지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어떤 생각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며, 나아가서는 성경을 앞질러 가서 성경에는 알려져 있지 않는 어떤 신비를 추구하는 행위”이

라고 한다. 칼빈은 “우리가 강단에 서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이념이 나 꿈을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칼빈의 신학적 프로그램은 성서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성서의 말씀에 의한 것 이외는 아무 개념도 형성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중세 스콜라신학을 매우 비꼬인 케변이라고 비판하였다. 칼빈의 성서 중심의 신학, 즉 성서주의를 문자주의로 만든 것은 17세기 정통주의자들이었다.

17세기 정통주의자들, 미국의 근본주의자들과 같이 결정론적 신학 체계, 독단적 획일적 신학, 신학교조주의자가 되어 형식적으로 전통을 이어가는 정통주의 신학을 고집하게 되면 그 신학은 ‘죽은신학’(dead theology)이 되며, 신앙이 이 신학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신앙도 ‘죽은신앙’(faith is dead)이 된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되며 이 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도 죽은 문자에 불과하게 된다. 사람의 사고유형과 논리형식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지나치게 묶어 놓으면, 성서가 하나님의 산 말씀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통보수주의자들은 가장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한다고 말하며, 신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성서를 강조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가장 인본주의적이고 가장 비성서적인 사람들인 것이다.

한국 개혁과 교회의 잘못을 극복하는 길은 칼빈의 신학을 재해석하는 새로운 신학작업을 하는 것이다. 박형룡교수의 잘못의 하나는 그가 한국교회의 ‘신학하는 길’을 막아 버린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미국에서 배운 정통보수주의 신학을 절대화하고 이 한가지 신학의 틀에 한국장로교회를 유케 고정화시키려 해서 다른 신학사상을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장로교회에서는 그 생명력을 잃고 그 신앙은 삶의 에너지가 되지 않고, 형식적 교리체제로 바꾸어 졌다. 신학은 항상 ‘신신학’(new theology)이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항상 새롭게 당신의 구원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발견하는 길은 신학을 새롭게 연구하는 길이다.

따라서 신학은 ‘시대의 아들’일 수가 있다. 항상 개혁되지 않는 신학은 ‘오늘의 신학’ 즉 ‘오늘의 그리스도 고백의 신학’이 될 수가 없으며, 그것은 역사속에서 은총의 자유로운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의 신학’일 수도 없는 것이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신신학’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자기 신학의 절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 장로교회 분열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교회는 어느 하나님이 고정된 신학체계의 노예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노예가 되면 교권주의가 그 교회를 주도하게 된다. 이 때 교회는 참 교회되기를 끝이게 된다. 이 때는 율법주의자가 교회를 지배하게 된다. 1953년 제38회 호헌 총회 선언문에서 우리가 “총회는 개혁교 본래의 대헌장인 신앙양심의 자유를 억압유린하므로 말미암아 그 신앙적인 존재 이유를 상실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근본주의 신학에 의한 교권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 즉 교권주의로부터 교회를 해방시키려는 것이었다. 호헌 선언서는 “해방후 우리 장로교계에는 극단의 전투적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당파와 그 동경자가 발호하여 1951년 이래 총회 총대석의 다수를 점령함과 동시에 편협한 독선주의로 성도의 협력과 친교를 거부하고 오직 자기 독단에 의한 심판과 배타를 일삼아 마침내 거룩한 모임은 위증과 저주와 분쟁의 무대로 화하였다. 그리하여 헌법도 신앙양심도 유린되고 오직 다수당의 기정 방침만이 그 횡포를 극하게 되었다”고 한국장로교회를 비판하면서, “우리는 온갖 형태의 바리새 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자유를 확보한다고 소신과 이념을 천명하였다. 이것은 개혁교회의 자기정체(identity)의 재확인어요 재천명이었다. 즉 개혁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1993년에 우리 교회는 ‘새 역사’를 시작한지 4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스라엘민족의 광야 생활에 해당되는 이 40년간의 역사,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을 호헌 총회 선언서의 빛에 다시 한

번 비추어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6세기 칼빈의 신학사상 즉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신학, 항상 새롭게 활동하시는 성령의 역사신학,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의 신탁(Oracles of God)으로서의 성서, 복음의 자유, 신앙양심을 자유케 하는 그의 구원에로의 예정에 따른 은총의 신학, 사회속에 있는 교회의 신학, 정치, 경제에 있어서의 기독교의 책임을 묻는 그의 기독교 윤리신학 등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재해석하여 한국개혁교회의 신앙을 생동력있게 하는 것이다. 개혁교회의 특징은 과거의 전통의 제한성을 항상 발전적으로 개혁하는데 있다. 이 신학적 과업의 펠그림이저(pilgrimage)의 개척자가 바로 장공선생이었다. □

제물(祭物)의 의미론 소고

김 이 곤*

〈차 례〉

서 론

I. 제(諸) 이론 중의 하나로서의 "선물"(贖物) 이론

1. 선물 이론

2. 친교 이론

3. 생명-속량 이론

II. 가장 보편적 이론으로서의

"감사의 선물" 이론

1. 야훼에 대한 경의(敬意)의 행위로서의 감사의 선물헌정
2. 화해(和解)의 수단으로서의 감사의 선물헌정
3. 자기부정(自己否定)의 행위로서의 희생적 선물헌정

결 론

참고문헌

서 론

폰·라트(G. von Rad)는 말하기를, "야훼에 대한 영적이고 예언자적인 신앙은 재구성하고 그 대신 사제적(司祭的)인 제의종교(祭儀宗教)는 불유쾌한 부산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일종의 독단적인 오류다"¹⁾

*신학과 교수/구약신학

1)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vol. I; New York and Evanston: Harper & Row, 1962), p. 260; E. Sellin,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Leipzig: 1933), pp. 98ff에서 인용한 것의 재인용.